

“남편들아”

베드로전서 3장 7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을 돌아보시고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가정은 건강합니까? 당신의 부부는 건강한 부부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데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관계를 남편과 아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은 부부관계보다 자녀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위에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부부는 이혼할 수 있다. 그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서 자식은 포기를 못한다. 오늘 당장 이혼하고 싶지만 자식 때문에 산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성경은 자녀관계보다 부부관계가 더 우선 순위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는 사회관계보다도 우선합니다. 사회적으로나 사업적으로는 성공했으나 부부관계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존경받는 사람이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부관계에는 부끄러워서 내 놓을 수 없는 그 참담함을 숨기고 행복한 부부처럼 위장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에게 자녀관계 보다 부부관계가 우선이고 세상적인 사회적 관계보다 부부관계가 우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는 전통이나 습관 또는 윤리 도덕에 따라서 가만히 있어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노력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바꾸어 말하면 노력하지 않으면 부부 관계가 깨어진다는 뜻입니다. 결혼했으니 자동적으로 행복하고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오산입니다. 부부 관계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매일 최선의 우선순위를 두고 애쓰고 노력해야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깨지면 자녀 관계도 사회관계도 다 실패합니다. 부부관계가 성공하면 자녀 관계에서도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 관계에서 실패하면 아무리 똑똑한 자녀를 두었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학교에 보냈다 할지라도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만큼 자녀에게 큰 교육은 없습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자기들이 본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제일 먼저 적용되어야 할 대상의 순서가 부부 관계입니다. 왜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

자녀 관계이고 그 다음이 주인과 종의 관계 즉 직장관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는 아내들에게 대한 말씀이었고, 오늘은 남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남편들에게 돕는 배필인 아내에 대해 지식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벧전 3:7) 남편들이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와 같이란 아내가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역할을 하듯 남편도 자기 역할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식을 따르라는 것은 남편은 아내에 대한 지식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알아야 합니다. 남편은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혼을 처음 막 해가지고 왜 부부가 자주 싸움니까? 아직 잘 모르고 있으니깐 그렇습니다. 기혼여성의 84%가 부부간의 친밀한 일체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연구 발표되었다. 그 이유는 남편이 부인의 감정과 마음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자신이 출근한후에 아내가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빨래는 벗어 놓으면 저절로 되는 줄 생각하고 음식은 불위에 얹기만 하면 척척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끼니마다 무엇을 상에 올려야 할지 고민하고 또 자기가 만든 음식을 식구들이 맛없이 먹을 때 속상해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고민합니다. 남편들은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본질적인 필요를 생각해야 합니다. 남편은 지금 아내가 심리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 하고 있는지 알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저 돈이나 벌어들여 주면 할 일 다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여성들은 예민합니다. 남편이 부인 앞에서 다른 여성을 칭찬하면 부인은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자신감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특히 외모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남편의 눈에 자기 모습이 아름답게 비치지 아니할지 모른다는 염려와 불안을 느끼는 부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약한 그릇이란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감정적으로 더 민감하고 손상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작은 말 한마디로 상처 받기 쉽고 한번 상처 받으면 혼자서 오랫동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자기와 같은 줄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아내의 자존심이나 감정이 다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여성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돈을 주고도 고칠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기도 합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벧전 3:7)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 주위 친구들도 자녀까지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천대하면 주위 사람도 자녀도 어머니를 천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돕는 배필인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을 아내가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견디시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그러나 나중에 늙어서 하나님에 섰을 때 평가 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 무엇을 희생했느냐로 판단하십니다. 만약 아내를 희생시키고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 달려온 남편이라면 가장 악한 자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헌신을 말합니다. 진정 남자다운 남자는 부인을 위해 자신을 주는 남자입니다. 자신의 야망과 성공과 출세를 포기하고 아내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남자입니다. 요즘은 돈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남편은 모든 야망이나 욕심을 버리고 아내 한 사람만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결혼할 때 큰 대못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 부인 외에는 다른 여자는 일체 좋아하거나 사랑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남자의 가장 큰 사명은 사업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서로 모자라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돕고 보완함으로써 완전한 인격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보완한다는 말을 몇 가지 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성격적인 보완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어머니가 못 바꾼 것을 아내가 매일 잔소리해서 바꿉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그래 나는 부족해 반쪽이니까 그러니까 한 10년을 잔소리 들어야 해 하며 결혼을 시작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성적인 의미에서 보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을 하나씩 주셔서 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부의 몸에 중요한 사실은 자기 몸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몸은 상대방의 것입니다. 남편의 몸은 아내 것이고 아내의 몸은 남편의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는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기에 건강해야 할 필요가 있고 잘 가꾸어야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몸 관리를 마음대로 해서 상하게 되면 결국 다른 한쪽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남편이 병들면 누가 책임집니까?

아내가 책임지고 다 감당해야 합니다. 아내가 병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병들면 안됩니다. 물론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부부의 몸은 각각 자기 몸이 아닙니다. 한쪽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다른 한쪽이 얼마나 고통스럽니까? 사별의 고통은 남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장 큰 충격입니다. 또 부부는 사회적으로 서로 보완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부부가 의논해서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여러 자문을 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최종 결정은 부부가 내려야 하고 특히 가정의 머리인 남자가 내려야 합니다. 시부모나 친정부모의 의견이 개입되면 그 가정은 사회적인 단위로서 역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면 어떤 어려움도 이깁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고 남편이 아내를 책임지는 가정은 어떤 어려움도 이길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이깁니다. 부부는 영적으로 보완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신앙이 다 좋으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지만 그런 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쪽이 시험이 들면 다른 쪽이 돕고 한쪽이 약해지면 다른 쪽이 기도로 지켜 줌으로써 영적을 보완해서 사탄의 역사를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입니다.

이 세상의 지위나 재산은 놀이터에 있는 그네와 같습니다. 누구든지 타고 놀다가 때가 되면 가야 합니다. 직책도 재산도 영구적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 남의 것입니다. 누구든지 거기에 한번 앉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물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확실히 아내의 것이고 아내는 남편의 것입니다. 자식도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아들도 결혼하면 며느리의 남편이지 내 아들이 아닙니다. 크면 다 떠납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 만큼은 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확실히 세워주어야 합니다. 부부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같이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업적을 남겼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너는 아내를 얼마나 채워주었니? 아내는 너는 남편을 얼마나 채워줬는지를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대해서는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남편에게는 오직 한가지 사랑입니다. **(엡 5:25)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여기에 말하는 남편이 아내 사랑은 원어 성경에 보면 친구의 사랑인 필레오나 조건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아가페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내 사랑하라고 했더니 '아니 사랑할데가 있어야 사랑하지' '사랑 받게끔 해야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성경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할 만하지 않아도 사랑할 조건이 없어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를 주신 것은 이유불문하고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라.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부부는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자꾸 부딪치고 만나야 합니다. 직업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만나야 합니다.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부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함께 작업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 취미입니다. 부부는 항상 의논하고 결정하라. 주택 구입, 자동차 구입 등 표현되지 아니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선 사랑은 마음에 담아야 하고, 입에 담아야 하며, 손에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남자에게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지 사랑을 조금도 표현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됩니다.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사랑은 공상에 불과합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돈은 애정표현의 중요한 척도입니다. 돈은 공유해야 합니다. 사랑은 마음에도 담아야 하지만 입에도 담아야 합니다.** 사랑이 담긴 남편의 말 한마디가 더할 나위 없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이 남편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자들은 남편의 말 한마디에 기쁨이 충만하여 춤을 추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에 죽고 싶을 만큼 상심해 울기도 합니다. **손에도 담아야 합니다.** 생일날, 기념일 등을 잊지 말고 꽃이나 케익 등 선물을 잊지말아야 한다.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책임지는 자세, 남편은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워준 리더로서 아내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리더인 남편의 잘못이다. 하나님께서도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짓게 될 때 아담에게 책임 추궁을 했다. 이 말은 모든 집안의 책임은 머리로 세워준 남편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음식 맛이 없어도 누구 책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주부가 불이 난 집으로 뛰어 들어가서 가장 먼저 구해오는 사람은 아이들입니다. 모성애가 발동해서 불길 속에서 아이들을 가장 먼저 구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지갑을 건져오고, 가구들을 건져옵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그래도 힘이 남아 있으면, 그때 남편을 구해온답니다. 물론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만,

설령 아내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남편들은 가장 먼저 아내를 구해야 합니다. 남편이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아내입니다. 아이가 아닙니다. 설혹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생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남편이 사랑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아내입니다. 능력이 없어도, 뭔가가 모자란다고 생각해도, 그건 남편이 아내를 구박할 이유가 못됩니다. 조건을 뛰어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중심으로 인간의 일생은 세 시기로 구분됩니다. 즉 홀로 한 인생을 사는 시기, 둘이서 한 인생을 사는 시기, 그리고 홀로 두 인생을 사는 시기입니다. 홀로 한 인생을 사는 시기는 결혼 이전의 시기로 이때는 자신을 위해 사는 시간입니다. 둘이서 사는 인생을 사는 시기는 결혼 이후의 기간입니다. 즉 두 이성이 부부가 되어 두 인생이 아닌 한 인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홀로 두 인생을 사는 시기는 배우자 중 한명이 먼저 세상을 떠난 이후의 기간입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흔히 두 사람이 부부로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은 죽음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극히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면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혼자 남은 사람이 먼저 떠나간 배우자의 몫까지 합쳐 홀로 두 인생을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결혼의 중요성은 참으로 지대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모든 인간은 부모의 도움 속에서 태어나고 양육 성장 역시 부모의 도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배우자의 도움으로 세상을 하직하게 됩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홀로 남게 된 쪽은 자신의 도움 속에서 세상을 작별합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의 삶은 홀로 남아 두 인생을 사는 배우자의 삶 속에 농축되고 그마저 세상을 떠나면 그 삶은 자식의 삶 속에 계승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세상을 떠나기는 매한가지지만 그들의 뜻과 얼은 단절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혼만이 안겨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부는 정말 서로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혼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서로 간의 사랑이 더욱 깊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될지 모르지만 먼 훗날 혼자 남게 될 때 기꺼이 홀로 두 인생을 살수 있도록 서로 상대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의 바른 얼과 뜻이 자식들에게 계승되고 그 얼과 뜻의 토대 위에서 자식들의 삶을 바르게 구축될 수 있도록 자신들이 먼저 바르고도 참된 삶을 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나눔의 시간

1. 당신의 부부는 건강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당신은 성령충만합니까? 차례대로 나누기 바랍니다.
2. 아내가 당신의 최고의 보배인 것을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3.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지의 지식에 대해 5가지만 말해 보세요.